

金 “이낙연과 대화해야”... 李 “단합위해 못할 것 없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김부겸 전 총리 오찬...당 통합 방안 논의 金, 의견 수렴 등 요청...총선 역할론 질문에 “얘기할 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만나 당 통합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와 김 전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한한정식집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어쨌든 간에 이낙연 전 대표와 물밑 대화를 해서 이 전 대표가 처한 처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며 “통합·안정·혁신이 어우러져야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온다고 했다”고 밝혔다. 또 “국민은 선거에서 절대로 한쪽이 일방적으로 쉽게 이기도록 두지 않는다고도 했다”고 전했다. 김 전 총리는 ‘이재명 체제로 총선을 치르는 데 대한 교감이 이뤄졌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지 않았다”면서 “어쨌든 이 전 대표가 탈당을 예고해 당으로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니 같이 함께 돌파해 나가자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특히 “단결과 통합을 위해서 이 대표가 바깥 목소리도 진지하게 경청해달라고 했고, 이 대표는 ‘잘 알겠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대표로부터 내년 총선에서의 역할을

제안받은 게 있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구체적 얘기를 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많이 도와달라고 했고, 나는 당을 도우러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도의 대화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에게 따로 브리핑하지 않았고, 권칠승 수석대변인이 대신 이 대표의 회동 발언을 전했다. 권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는 당의 단결과 총선을 위해 산이든 물이든 건너지 못할 게 없다고 했다”며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가겠다는 입장을 말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전 총리는 과거 야권 분열 시 선거 패배의 아픔을 이야기하며 당의 단결을 강조했다”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했고 당의 어른인 김 전 총리의 많은 역할을 당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김 전 총리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현행 연동형 비례제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니 기본적 취지는 지켜주는 게 좋다고 했다”며 “이 대표에게 범민주진영의 대표자로서 의견을 잘 수렴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 대표는 “김 전 총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더 수렴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권 수석대변인은 말했다. 두 사람은 오찬장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간단한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당이 이렇게 어려울 때 조금이라도 선배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의견을 모아보자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 대표를 본다고 하니 여기저기서 주문이 많이 들어왔다. 당 내에서 보는 것과 당 바깥에서 당을 걱정하는 분들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능하고 또 한편으로 무책임하기까지 한 윤석열 정권 정권의 역주행 폭주에 대해서 걱정이 많다”며 “민주당이 제야 할 책임이 참 크다. 힘을 모으고 또 한편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께 희망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을 탈출시키고 여당으로 오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 오셔서 큰 뜻을 함께해 주시기 바란다”며 “저도 함께 걸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회동을 위해 종로구 해남2빌딩에 들어서며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지지층 84% “이낙연 신당 반대”

YTN 여론조사 호남 유권자 67% 부정적...창당 동력 떨어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움직임에 대해 민주당 지지층 84%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호남에서도 유권자 67%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답변을 해 이 전 대표의 지지층인 호남에서도 신당 창당 동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YTN에 따르면 YTN 의뢰로 엠베레인퍼블릭이 지난 17일부터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이번 조사를 통해 이낙연 신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36%, 반면에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50%였다. 전체적으로 이낙연 신당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는 층이 많았고, 무엇보다도 민

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84%로 나왔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긍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이 69%로 나타나 대조를 이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67%의 유권자가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부정적으로 봤다. 이번 조사는 면접원이 직접 전화면접 방식으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1.7%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자세히 참조하면 된다. 한편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무선 전화면접 100%,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이낙연 전 대표 중심 신당 창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46%가 ‘좋지 않게 본다’, 34%가 ‘좋게 본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민주당 지지자의 71%가 신당 창당에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광주·전라지역 응답자의 64%도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지역별로 광주·전라지역의 부정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고, 대구·경북을 제외한 서울과 인천·경기, 대전·세종·충청,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도 신당 창당에 부정적인 답변이 높았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21%, 광주·전라지역 26%만이 긍정 평가로 답했다. 국민의힘 지지자 54%는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긍정 평가를 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 168명이 참여하는 단체 SNS에 이 전 대표의 신당 창당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의원은 이날 현재 110여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김성진 ‘3대 미래산업 육성 공약’ 발표

광산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성진 광주 광산구를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20일 첫 번째 공약을 발표하고 출마 재비를 가속화했다. 김 예비후보는 후보 등록 후 첫 공약으로 ‘3대 미래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미래차, 신방위산업, 바이오헬스 등 3대 산업을 미래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 예산 1조 3700억원 규모, 신규 일

자리 1만개를 광산구에 창출할 계획을 세웠다. 김 예비후보는 자동차 산업과 관련, 미래자동차 글로벌 허브로 구축해 해당 분야 선도 도시로 도약시키고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안을 제시했다. 또 연관 기업을 집적화하고, 기존 내연기관 중심 기업들을 미래차 품목으로 다변화할 수 있도록 대형 국책과제를 확보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이어 김 예비후보는 ‘AI특화형 방산혁신클

러스터’를 제안하고 광산업의 고출력레이저를 기반으로 한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 구축, 지역 내 방위산업학과·방위산업 전문대학원 설립 등 방위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33회 행정고시(재정직)에 합격해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광주테크노파크 원장도 한국디스플레이산업 협회 상근 부회장 등을 지냈다. /김해나 기자 khn@



총선 브리핑

정준호 “청년세대 마중물·디딤돌 역할 할 것”

광주 북갑 예비후보

내년 총선 광주 북갑갑 출마를 준비중인 정준호 후보는 20일 “청년세대 마중물·디딤돌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날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치를 선도해 온 광주·호남 정치가 더불어민주당에서조차 변방으로 밀려나 존재감 없이 무력해졌다”며 “광주와 호남이 처한 시대적 책무를 도저히 내팽개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남 정치 위기는 지역 구도에 기대 어떤 혁신도, 비전도 보여주지 못한 기득권 안주 정치에 원인이 있다”며 “시대에 맞는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가치를 선도할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 광주와 호남 정치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인물·세대 교체뿐이다”고 강조했다.



이러 “좌고우면하지 않고 광주시민과 북구 주민만 보며 진심을 다해 온몸으로 정치를 해왔다”며 “묵묵히 준비해 온 정준호가 광주시민, 북구 주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서방천 복원 후 생태하천 조성 ▲서방시장-문흥IC 저심도 지하도로 개설 ▲전남대 앞 도심형 공동 캠퍼스로 조성 ▲단절된 도시 공간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는 사회, 법과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인정받고 학연·지연·배경이 없어도 서러움을 겪지 않는 사회, 불평등·양극화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 광주·호남 대표 청년 주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

함께하는 100년 동행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서비스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올바른 POINT UP 카드

국내·외 전 가맹점에서 무제한 포인트 적립!
전 가맹점 최대%적립 + 생활밀착형 가맹점 추가 적립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국제공항 라운지 무료이용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운암벽산지점 062)529-5335~6 |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
| 지평지점 062)381-8212~3 | 동문지점 062)513-8521~3 | 동문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로컬푸드(시청) 062)364-8400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하나로마트동림점 062)511-2901~3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